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한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름 무더위를 지나 선선한 가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처서는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 더위를 식힐 수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계절마다 제철 과일이 있다고 하는데, 중복에 참외, 말복에 수박, 처서에 복숭아, 백로에 포도가 제철 과일로 최고로 맛있다고 합니다. 철따라 과일을 맛볼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느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마태 16,13) 하고 물으십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마태 16,14)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 재차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드립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5)

정답입니다.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 너는 베

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 또 나는 너에게 하는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마태 16,17.18-19) 시몬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제자들의 신앙고백이었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오 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오 복음 한가운데 위치해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 중간 점검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며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도대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십자가 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갈전본당에 와서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사목회나 본당 단체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교우들과 함께 본당의 기초를 닦아가고 있습니다. 본당의 기초공동체인 구역모임도 만들어야 하고 전례교육도 처음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예비신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으니 예비신자 교리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건립 부지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 성전건립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전건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돼지감자를 캐서 팔기도 했고 메주와 청국장을 만들어 성전건립기금에 보탬했습니다. 유기농 건강 썩 미숫가루를 만들기 위해 썩을 뜯고 삶고 말렸습니다. 성전건립하기 전에 힘들어 죽겠다는 불만도 나왔지만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갑니다. 일하면서 교우들이 단합되고 신앙도 돈독해진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비오 신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일만 열심히 하다보면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전 본당 최송근 비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 제21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한 미사성제와 말씀을 통하여, 또 각자의 신앙체험을 통하여 이 천년 전 으뜸 제자인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가벼운 말이 되지 않도록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열쇠로 우리의 길을 잘 열어가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본기도

†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22장 19절-23절

안 내 : 주님께서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묵 상 : 주님께서 당신의 종 엘야킴에게 권력과 다윗집안의 열쇠를 주시고 그를 영광의 왕좌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정성을 다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을 입으며 살아갑시다.

화답송 :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2독서 : 로마서 11장 33절-36절

안 내 :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묵 상 : 창조된 세상 만물은 모두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났으니 그분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6장 13절-20절

강 론 :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1-2쪽)

예물준비성가 :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영성체 후 묵상

가끔 자신에게 묻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만약 내가 죽어 비석을 세운다면 무엇이라고 비석의 글을 새길까?

매일의 삶을 열심히는 살고 있으나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만드신 주님을

욕되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침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침묵>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께,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대답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알아듣게 된 베드로는 참으로 행복하다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인식되고 싶은지

마음 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는 과연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나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의 신앙을 먼저 살펴보고 키워가는 것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 공소사목 성금

송기호님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82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상주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8월 27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계림동 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하반기 주일학교 수녀모임

- 일시 : 9월 4일(월) 11:00 - 5일(화) 14:00
- 내용 : 영주·북부지구 성지순례
- 집결장소 : 11시 영주 휴천동 성당
(10시 20분 안동버스터미널)
- 준비물 : 세면도구, 운동화, 필기구, 개인시트
- 참가비 : 40,000원
- 신청 : 8월 31일(목)까지 사목국

■ 하반기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

- 주제 : “밭에 묻힌 보물”(마태 13,44)
- 일시 : 9월 10일(주일) 9:30 - 17:00
- 대상 : 본당 중·고등부 회장단
- 장소 : 교구청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간편한 복장, 운동화
- 참가비 : 20,000원
- 신청 : 9월 1일(금)까지 사목국

■ 9월 예비신학생모임

- 일시 및 장소 :
9월 10일(주일) 12:00 (송현동본당)
안동·의성·북부·동해지구
- 9월 17일(주일) 12:00 (모전동본당)
상주·문경지구
- 문의 : 사목국으로(858-3114~5)

■ 순교자 현양 성가발표회

- 일시 : 9월 23일(토) 09:3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대강당
- 종목 : 1) 성가발표 : 합창 혹은 중창
지정곡(순교자 현양 성가 1곡)
자유곡(기타성가 1곡)
※ ‘가톨릭성가’ 외의 곡도 가능합니다.
- 2) 기타공연 : 악기연주, 춤, 연극,
콩트 등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9월 30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 총 8회
- 장소 : 영해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동해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신청 : 9월 14일(목)까지 사목국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8월 28일(주일) 20:30
- 장소 : 예천성당
- 강사 : 김영복 데레사 수녀(성바로말수도회)

■ 레지오 마리아에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피정

- 일시 : 9월 3일(주일) 10:30 - 15: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평의회 4간부 및 Pr. 단장
(해당자 불참시 대리 참석)
- 강사 : 이철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마산교구 가톨릭 교육관 신부)
- 제목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성제 안에서의 주님의 현존과 활동)
- 회비 : 1인당 10,000원
- 준비물 : ‘매일미사’ 책자, 목주, 활동 수첩,
미사 준비
- * 피정 후 주교님 집전 미사 있습니다.

■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아시아 최초로 좋은학교(Q.S) 인증을 받아 인성·지성·영성의 전인적 교육을 실시하는 하느님 사랑의 학교입니다.
- 원서접수 : 9월 11일(월) ~ 9월 26일(화)
- 문의 : 043-260-5076, 5078
<http://yangeob.hs.kr>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5장

사랑의 결실

확대된 결실

178. 혼인한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에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다음도 알고 있습니다. “혼인은 출산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가끔 간절히 바라는 아이가 없더라도 혼인은 온 생애의 공동생활과 친교로서 지속되며, 그 가치와 불가해소성도 보존됩니다.” 게다가 “모성은 배타적인 생물학적인 현실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179. 입양은 모성과 부성을 매우 너그러운 방식으로 실현하는 길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에게 그들의 부부 사랑을 확대하고 열어 적절한 가정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을 권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너그러움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며, 가정이 없는 아이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물학적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들에 대한 입양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그 아이들의 낙태나 유기의 방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조건과 대가 없이 입양하고 환대하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하느님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설령 여인들은 잇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잇지 않는다.”(이사 49,15)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80. “입양이나 위탁 부모 되기를 선택하는 것은 혼인의 체험에서 특별한 결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고통스러운 불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완성의 권리로 아이를 원하는 상황의 경우에, 올바르게 이해된 입양이나 위탁은 부모 됨과 자녀 됨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이는 아이들이 친자든 입양되었든 위탁되었든 상관없이 고유한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으며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 세상에 내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도와줄 때에 그러합니다. 입양과 위탁 부모 되기

를 결정할 때에 언제나 아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여러 나라와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인신매매는 적절한 법적 조치와 국가적 통제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181. 또한, 우리는 출산과 입양이 사랑의 풍요를 실천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많은 가정도 사회에 발자취를 남기라는 부르심을 받아, 가정을 지탱해주는 사랑을 확대하는 또 다른 형태의 풍요를 발전시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신앙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데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도피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기다리며 머물지 말고 연대적 주구로 자기 자신을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정은 개인과 사회가 결합되는 자리이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연결되는 지점이 됩니다. 혼인한 부부는 자신들의 사회적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부부를 결합시키는 애정은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빛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한 시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대의 손은 나의 애무
나의 일상 선율
내 그대를 사랑함은 그대의 손이
정의를 위해 일하기 때문

내 그대를 사랑함은
나의 사랑 나의 공모자 나의 전부이기 때문
거리에 나가 어깨 걸면
우린 둘 아닌 여럿.”

182. 가정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다르거나 ‘별개’의 것으로 여기면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이 은총과 지혜가 충만하였지만 ‘보기 드문’ 가정은 아니었다는 사실, 곧 일반 백성들과 차이가 없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마르 6,2-3)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마태 13,55) 이러한 질문들은 예수님의 가정이 평범하게 공동체에 속하며 다른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소박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외부에 닫혀 있는 배타적인 관계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친척과 친구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족과 기꺼이 교류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던 길에, 마리아와 요셉이 열두 살 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어디에선가 일행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들의 관심사를 나누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루카 2,44). 그러나 일부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의 행동이나 다른 이를 대하는 방식, 또는 두세 가지의 주제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회에서 분리되어 따로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친척들도 무시당하거나 심판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제주도 성지 순례(2)

조태영 세례자 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24일 아침부터 비가 왔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오전 10시 10분에 모슬포 항을 출발하여 마라도로 향했다. 일령이는 파도를 따라 모슬포 포구를 벗어나자 모슬포 항 주변 절벽에서 일본군이 요새(要塞)로 사용했던 여러 개의 동굴을 볼 수가 있었다. 해방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3개 사단 1개 여단)의 수는 약 60,000여 명이었다고 한다. 10시 40분경에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에 도착했다. 마라도의 면적은 만 평 정도 되고 해안선의 길이는 4.2Km이며 실제로 상주하는 인원은 주민등록상 50여 명이고 주로 출퇴근을 한다고 했다. 생각 밖으로 헛집보다는 짜장면집이 많았다. 해안선은 파도에 침식된 20m 정도의 높은 절벽이고 곳곳에는 파도로 침식되어 생긴 큰 동굴들이 있었다. 섬은 대체로 초지였고 야생의 선인장도 볼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 야자수, 선인장, 삼나무 등의 열대성 식물이 많아 이국적인 풍경이 더욱더 호감을 주었다. 초등학교 분교도 하나 있고 불교의 사찰과 개신교의 예배당과 천주교의 성당이 하나씩 있는데 기도의 집으로만 이용한다고 한다.

마라도 관광을 마치고 모슬포 성당을 방문했다. 모슬포성당은 모슬포에 1951년 육군 제1훈련소와 중공군 포로수용소가 들어서면서 군인들과 중공군 포로들의 사목을 위해 1954년에 36평의 단층 벽돌 조로 서귀포본당 모슬포공소를 지었는데 이때 중공군 포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뜻에서 성당건축공사에 대거 참여 했다고 하여 <통회의 집>이라고 불렸다. 모슬포는 신축교안으로 천주교에 대한 지방 주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6.25동란 직후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톨릭구제위원회의 원조 물자를 나누어 주면서 전교를 하여 이웃의 많은 주민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교세가 확장이 되자 1958년에 현재의 성당을 완공하여 모슬포 본당으로 승격 되었다. <통회의 집>은 <사랑의 집>으로 개명하여 교육관이나 주민들의 연회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모슬포성당은 계속 교세를 확장하여 무릉공소와 화순공소를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제와 교우들의 노력으로 정난주 마리아의 묘를 찾아 성역화 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역사의 산 증인인 모슬포성당은 천주교의 중요한 사적지가 되었다. 우리 일행은 이렇게 유서 깊은 성당에서 미사를 올렸다. 이번 성지순례는 신부님과 수녀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나 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은 세례자요한 축일이다. 미사 중에 모든 이로부터 본명축일 축하를 받았다. 너무나도 기쁜 은총의 시간이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로 오설록 제주 도순다원의 <오설록티뮤지엄>을 방문했다. 도순다원은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녹차 밭이고 오설록티뮤지엄은 한국 전통 차 문화를 소개하고 널리 보급하고자 2001년 도순다원의 2,000여 평의 대지에 연건평 465평의 찻잔 모양의 국내 최초의 차 박물관이다. 차의 역사와 다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차문화화실', 일본, 중국, 유럽의 찻잔이 전시된 '세계의 찻잔',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티 클래스' 등으로 꾸며졌다. 차문화실에서는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와 함께 발전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오설록티뮤지엄 박물관 밖에는 푸른 녹차 밭이 도로를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다.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태평양화학)이 약 15만여 평의 불모지를 개간하여 198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다원과 현대식 제다(製茶)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곳이 바로 오설록 제주 도순다원이다. 이곳에서 국내 전체 녹차 잎 생산량의 24%(850톤)에 이르는 녹차를 생산하여 년 간 백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제주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오설록티뮤지엄에서 M·고레띠와 함께 마시는 녹차의 향은 오늘따라 더욱 향기로웠다.